

군산시, 국가예산 1조218억 확보

전년보다 115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군산시가 1조 218억이라는 2019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해 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정부세수 결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했던 1조 103억 원보다 115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군산시의 주요 국가예산 확보내역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연구개발 R&D 사업, 도시재생 사업, 문화 관광 분야 사업, 새만금 개발 관련 분야 예산 확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35억)과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45억),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 광역 해양관광레저 체험단지 조성(10억), 어촌뉴딜300사업(70억), 소상공인 스마트 자문 참고컨설팅(1.6억) 등 총 사업비 3,083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272억) 확보로 기업유치를 위한 추가 용지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본격적인 새만금 투자유치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전장에 뛰어든 김임준 군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소통과 협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봉과된 기반 산업과 침체에 빠진 군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군산시가 재도약하는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강 시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가 늦어짐에 따라 군산경제 회복의 핵심사업인 군산사랑상품권 추진사업이 국가예산 항목에 빠져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군산사랑상품권 등 미반영된 위기지역 지원 사업이 정부추경과 목적예비비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과 연계해 총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2018년도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정부추경에 27개 사업 1,125억 원, 목적예비비로 24개 사업 416억 원, 특별교부세 11개 사업 84억 원 등 총 1,62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실직자를 신산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신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위그선·정비사·운항관리사 등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군산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부터 실직(구직)자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기, 신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산업 전문 과정인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취업연계 프로그램인 위그선 정비사, 위그선 운항관리사 등의 과정을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약 40명 가량이 훈련에 참여해 이중 40% 정도의 훈련생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 준비하는 한 시민은 "실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지인의 소개로 수면비행선박 정비사 과정에 참여하게 돼 항공·선박의 이론을 배우고 복합재(FRP) 성형 실습을 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돼 지금은 다시 출근할 날을 기다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남균 센터장은 "2019년도에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연계형 교육 과정'을 확대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내년 예산 6872억원 성과

역대 최고액 달성... 올해보다 151억원 증액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151억원(2.2%) 증액된 6,872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SOC 분야 1,525억원, 농업분야 1,718억원, 문화관광 347억원, 복지 보건 분야 2,716억원, 안전 환경 분야 335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은 전년대비 201%가 증가한 52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사업(40억원)과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56억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술 선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가상현실을 현실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홀로그램(HR)사업의 일환인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중 2019년 국가 예산 40억을 신규 확보하면서 익산시가 홀로그램 메카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4월에 예타를 통과한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524억 중 56억을 확보하면서 기존 섬유산업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주얼리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 유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주얼리단지 임대공장 건립사업(15억원), 북동부 지역의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익산시립 금마도서관 건립사업(15억원), 지역 쌀 매입량 확대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33억),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통해 기업과 농업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익산 RICE-10 가공산업 육성사업(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가식품 클러스터 농식품 원료비축 공급센터 구축사업(10억원) △기능성식품 제형 기술 기반구축사업(10억원), △농촌융복합산업 실증센터 설립사업 설계 용역(1억원) 등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상생도시 관련 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48억원) △민중강 신터지구(물문화관) 하천정비사업(40억원)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50억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사업(300억원) △국경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255억원)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20억원) 등의 굵직한 사업들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했다.

한편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지난해 9월부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각 부처 예산편성 단계, 기재부 예산편성 단계와 국회 심의 단계까지 중앙부처와 국회에 끊임없이 찾아가 노력한 결과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지역복지사업 평가 2관왕

익산시가 전국 226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민관협력·자원연계 대상 등 2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과 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대상을 수상하면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민관협력·자원연계 분야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민관 파트너십

을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지역 인적 안전망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회 제공, 민관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3년 연속 수상하며 지역복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복지의 주인이 되고, 협력으로 더불어 하나 되기 위한 노력 덕분에"라며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조성하여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소방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익산소방서가 "지난 11월 서울시 종로구의 고시원화재와 관련하여 지역 특화형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중인 익산소방서는 관내 41개 고시원에 대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서울 종로고시원 화재로 인해 다수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시원의 구조적 화재취약성과 화재위험요인이 확인되었다.

익산소방서에서는 익산관내 41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별조사반은 이번 화재가 스크린러 미설치 대상이고 전열기에서 발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36개 고시원에 대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에 나서게 된다.

고시원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및 소방시설 작동상태, 고시원 내 전열기구 등 전기분야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고시원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고시원 시설에 맞는 소방시설 사용방법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시원대상 소방안전특별조사와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군산시,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 점검회의

군산시는 올 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지난 7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효과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과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피해지역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적으로 확인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의 생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도계량기 동파 유형 분석을 통해 수용기 관리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취약지구 예방활동과 인입 수도관 계량기 동파 상황반을 편성 운영하여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한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